

소상공인 내일부터 최대 200만원 받는다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241만명에 최대 200만원
연매출 4억 이하+매출 감소 소상공인 100만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줄어든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 매출 4억원 이하,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매출과 상관없이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일반업종 매출감소의 기준과 신청 방법
매출 감소는 일반 업종의 경우 지난해 연평균 월매출과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을 비교해 감소한 경우

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창업한 사람의 경우 5월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6월, 7월의 평균 매출과 8월의 평균 매출을 비교해 감소했다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를 따로 증빙할 필요가 없다. 중기부는 국제청으로부터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대상자를 추출한 뒤, 대상자에게 문자로 공지할 계획이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24일부터 'www.새희망자금.kr'으로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활착제로 신청을 받는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 금요일에는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한 소상공인은 빠르면 25일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문자가 오지 않았다면 추석연휴 이후

같은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899-1082로 문의하면 된다.

◇특별피해업종, 10월 초 지급...노래방 등 7개업종만 즉시지급

특별피해업종은 8월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업종과 국제코드도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다르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서 일괄적으로 지원이 어렵다.

특별피해업종은 추석연휴가 끝난 10월 초에 지급되며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국제코드로 명확히 구분이 되는 7개 업종 27만 명에게는 150만 원 또는 200만원을 즉시 지급한다.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7개 업종은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도 있다. 정책자금용자에서 적용되던 대로 사행성 업종이나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종 등은 이번에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고, 법적으로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 무등록점포도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무등록점포는 복지부 긴급생계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집합금지에 순응한 사업체들에 대한 특별구제 차원에서 유흥업종과 콜라텍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외에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여러 사업과 중복지원을 불가능하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뉴스

고성능 입힌 '쏘나타 N라인' 공개

중형세단 최초적용...넓은 공간·주행성능 두 마리 토끼 잡아



현대자동차 대표 세단 쏘나타가 한층 스포티한 '쏘나타 N라인'으로 거듭났다.

현대차는 쏘나타의 혁신적인 디자인에 고성능 'N'의 감성을 입혀 더욱 역동적으로 거듭난 쏘나타 N라인의 외장 이미지를 23일 최초로 공개했다.

중형급 세단에 N라인 트림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쏘나타 N라인은 스포티한 디자인과 함께 주행성능 강화도 이뤄져 일반 모델과 차별화된 매력을 선보였다.

기존 쏘나타를 통해 선보인 디자인 정체성 '센슈어스 스포티니스(감성을 더한 스포티함)'를 바탕으로 쏘나타 N라인에 N브랜드 특유의 고성능 이미지를 입혔다.

전면부는 ▲기하학적인 문양이 특징인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 그릴 ▲기능적인 3개의 인테이크 홀이 적용돼 강인한 이미지를 더해주는 N라인 전용 범퍼 ▲시각적 무게중심을 낮춰 스포티함 강조하는 프론트 윙 ▲고성능 N의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N라인 엠블럼이 적용됐다.

측면부는 ▲범퍼와 연결돼 차체를 한껏 낮아 보이게 해주는 사이드 실 ▲휠 하우스 공기 흐름을 고려해 적용된 에어벤트 ▲아웃사이드 미러와 사이드실 몰딩 등에 적용된 블랙 하이그로시 포인트 컬러 ▲N라인 전용 19인치 알로이 휠이 조화롭게 자리했다.

후면부에는 ▲블랙 하이그로시 포인트 컬러로 돋보이는 범퍼 하단부 ▲공기역학적 효율을 높여 스포티한 ▲고성능 이미지를 배가시키는 듀얼 트윈팁 머플러가 적용됐다.

현대차는 쏘나타 기본 모델과 하이브리드, 센슈어스(1.6T 엔진 사양) 라인업에 쏘나타 N라인 모델까지 더해져 중형 세단의 라인업을 완성했다.

한편, 현대차는 게임회사 '넥슨'과 제휴해 인기 모바일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와 PC게임 '카트라이더'에 쏘나타 N라인을 모티브로 제작한 카트를 선보인다.

넥슨은 쏘나타 N라인과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의 만남을 엿볼 수 있는 티저 영상을 공개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28일 공개된다.

광주TP,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지원

28일까지 중소·벤처 지원 기관 협회단체 모집

광주테크노파크가 오는 28일까지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에 참여할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과 업종별 협회·단체 등을 모집한다.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대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비즈니스와 디지털 비즈니스 인프라 조성을 위해 기업인들의 이용이 많은 지원시설 등에 개방형 화상회의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가능한 기관과 협회, 단체며 공모를 통해 75개소를 선정하고, 화상회의실 구축을 위한

장비와 화상회의 솔루션 활용에 대해 개소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원기관으로 선정되면 현재 사용 중인 회의실에 구축한 화상회의시스템을 중소기업에 상시 개방해야 한다.

광주TP 홈페이지(www.gjtp.go.kr) 또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신청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e-나라도움 또는 광주TP 홈페이지(www.gjtp.or.kr)를 참조하거나 광주TP 기업육성부(062-602-7221, 7223)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기 기자

광주백화점들 25일부터 가을 정기세일

최대 70% ↓...신세계·롯데 10월11일까지 세일 돌입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오는 25일부터 10월11일까지 가을 정기세일에 돌입한다. 올해 세일행사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진작을 위해 전년 대비 5~7일 연장해 진행한다.

행사도 마련됐다. 정기세일 기간 동안 신세계 제휴 카드로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모두의 마블, 루미큐브 등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 4종 중 1개를 받을 수 있다.

◇광주신세계...이월 상품 최대 70% 할인

광주신세계는 행사기간 동안 다양한 브랜드를 1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이월 상품은 최대 70% 할인한다.

행사 기간에는 인기 여성 의류, 스포츠 브랜드도 대형 할인 행사를 선보인다.

인기 핸드백 브랜드인 닥스, 헤지스, 루이까포즈, 메트로시티 등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특별한 혜택의 사은행사와 함께 명절을 앞두고 가족과 함께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보드게임 증정 행사와 세일을 맞이해 사은·증정

◇롯데백화점 광주점... '홀코노미' 리빙 상품 등 다양한 기획전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7일간 진행되는 정기행사 기간 동안 여성, 남성, 잡화 등 전 상품군에 걸쳐 브랜드별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다양한 기획전을 선보인다.

이번 세일은 명절 연휴와 겹쳐 쇼핑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를 분신하고 더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제공해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1주일 연장했다.

패션 행사에 주로 집중했던 기존 세일과 달리 2020년 메가트렌드 '홀코노미'로 매출 신장세를 보이는 가전, 가구, 주방용품 등 리빙 상품군 행사를 늘려 선보인다.

광양항 '컨' 부두 2-2단계 육상전원공급설비 준공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2-2단계에 육상전원공급설비(Alternative Maritime Power, AMP)를 준공했다고 23일 밝혔다.

AMP는 대형선박이 항내 정박 시 필요한 전력을 기존 디젤발전기에서 육상전력으로 대체해 배연,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오염 물질을 저감시킬 수 있는 설비다.

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간 AMP 설치 공사를 진행했으며, 컨테이너 선박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시운전을 완료했다.

이에 앞서 공사는 지난해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3-1, 3-2 단계에 각각 AMP 설비를 준공한 바 있다.

이번에 설치한 AMP 설비는 기존에 설치한 설비와 달리 40피트(ft) 컨테이너를 중간접속장치로 사용해 육상과 선박을 연결하도록 했다.

/광양·주순의 기자

전남 농특산물 쇼핑몰 '남도장터' 품질관리 강화

전남도는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고객불만 제로를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남도장터는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 증가와 친환경 꾸러미 지급 등에 힘입어 지난 4월 기준 매출액 200억원을 돌파했으며 지난해 8월 말 대비 7.4배 가량 급성장했다.

전남도는 오는 28일까지 도내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남도장터 원산지 표시 및 식품안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

부정 유통이나 소비자 불만이 많은 제품, 구매자에게 공지하지 않은 배송 지연 등 소비자 기만, 고의성이 명백한 업체의 경우 즉각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추석을 앞두고 주문 폭주로 남도장터 콜센터의 전화 연결이 지연된다는 민원이 많아 남도장터 콜센터 직원을 현재 6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상담사 연결까지 안내 코멘트를 알리는 등 고객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있다.

/최수남 기자



이마트, 피코크 제수용품 판매 23일 이마트 성수점에서 피코크 간편 제수용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 제공

인구 자연감소 9개월째 지속...코로나에 혼인 '역대 최저'

통계청 '인구동향' 발표...7월 출생아 52개월째 최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인구 자연 감소가 9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결혼을 미루면서 혼인 건수 또한 역대 최저를 찍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3067명으로 전년(2만5222명)보다 8.5%(2155명)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래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감소폭은 2005년 7월(-8.9%)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다. 출생아 수는

계절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 같은 달끼리 비교한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이후 56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 2016년 4월부터 52개월째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경신 중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3명이다.

1~7월 누계 출생률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16만5730명을 기록했다. 전년(18만3647명)보다는 9.8% 쪼그라들었다.

감소율은 2001년(-10.1%)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사망자 수는 전년(2만3216명)보다 3.2%(747명) 증가한 2만3963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조사망률은 5.5명이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분은 896명이었다.

월별 인구 자연증가분은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기준으로 인구 자연 감소가 유력해졌다.

코로나19로 결혼식을 미루면서 7월 혼인 건수는 전년(1만9178건)보다 10.9%(2098건) 감소한 1만7080건에 그쳤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적은 셈이다.

광주 지오씨(주) 광케이블 수주 '대박'...프랑스만 330억원

유럽·아프리카 광통신망 구축...향후 수년간 수주 전망

광주 소재 광통신 전문업체 지오씨(주)가 코로나19 여파로 국제경기가 침체된 상황 속에서도 공격적인 해외마케팅을 통해 광케이블 수주 경쟁에서 대박을 터트렸다.

지오씨(주)는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 큰 시장을 확보한 프랑스 광통신 네트워크 사업자로 부터 FTTH Fiber To The Home·가립사전모용 케이블 330억원 상당을 수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규모 물량 수주로지오씨는 국내 분사와 유럽 해외 생산거점인

포르투갈 현지 생산라인을 24시간 풀가동할 수 있도록 체비를 마치고 9월 말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착수한다. 수주한 광케이블을 길가로 환산하면 11만5140km에 달할 정도로 물량 면에서도 압도적이다.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을 담당하는 포르투갈 현지 생산 거점에서 24시간 생산라인을 풀가동해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대박 수주의 성공 뒤에는 지오씨가 올 초부터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사태로 국제경기 침체가

장기화 할 것으로 전망되자 철저하게 대비해 온 게 주요했다.

지오씨는 지난 3월부터 국내 생산 거점과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우즈베키스탄 등 3개 해외생산·마케팅 거점을 주간 단위로 연결하는 '온라인 실시간 경영전략회의'를 상설화하고 회사간 해외시장 동향 점검을 강화해 왔다.

지오씨와 공동출자한 프랑스 T사의 경우 유럽 시장에서 큰 영향력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미개척 신시장으로 급부상 중인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물량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